**Text: Římanům 10,16-21**

본문: 로마서10, 16-21

Ale ne všichni přijali evangelium. Už Izaiáš říká: ‚Hospodine, kdo uvěřil naší zvěsti?‘ Víra je tedy ze zvěstování a zvěstování z pověření Kristova. Ptám se však: To snad nikdy neslyšeli zvěst? Ovšemže slyšeli! ‚Po celé zemi se rozlehl jejich hlas, do nejzazších končin jejich slova.‘ Ptám se tedy: Nepochopil Izrael, co mu bylo zvěstováno? Nepochopil; už u Mojžíše se přece říká: ‚Vzbudím ve vás žárlivost na národ, který není národem, proti národu pošetilému vás popudím k hněvu.‘ A Izaiáš má odvahu říci: ‚Dal jsem se nalézti těm, kteří mě nehledali, dal jsem se poznat těm, kteří se po mně neptali.‘ O Izraeli však říká: ‚Každý den jsem vztahoval ruce k lidu neposlušnému a vzpurnému.‘

16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8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19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써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써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0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21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Kázání**

1. Ne všichni přijali evangelium. To je skutečnost, kterou musel apoštol Pavel vzít na vědomí. S bolestí ji po dvou tisících let bereme na vědomí i my. Evangelium se zvěstuje, dokonce v nejzazších končinách země. Je málo míst na světě, kam by vůbec neproniklo. A přece: ne všichni ho přijali.

모든 사람이 복음을 영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야 했던 사실입니다. 지난 2 천 년을 돌아볼 때 안타깝지만 우리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땅 끝까지 증거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2. Můžeme se ptát, zda jsme zvěst o Kristu předali a předáváme čistě - překrucování a komolení, které z původní průzračné vody dělá nechutnou břečku, co se nedá pít. Musíme také uvážit, jak svědčíme o Kristu vlastním každodenním životem. Možná hlavně kvůli našim různým proviněním a chybám se evangelium stává pro druhé nevěrohodným.

우리는 순결한 복음을 전했는지 또 지금 전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처음 순수했던 물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개울가의 물처럼 마실 수 없는 물로 만들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의 여러 허물과 잘못으로 인해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못 할 것이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Katolický teolog Karl Rahner řekl, že člověk, k němuž se křesťanství dostalo ve znečištěné a nevěrohodné podobě, má právo ho odmítnout. Dnes se slovem „křesťanský“ označuje mnoho věcí, které s Kristem nemají nic společného. Pak se nemůžeme divit, když lidé Kristu nedokáží říci své ano. Vždyť by jednali proti svému svědomí!

카톨릭 신학자 칼 라너는 만약 어떤 사람에게 기독교가 불순하고 믿지 못 할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그 사람은 그러한 기독교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적인“ 이란 단어는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들의 „yes“를 말 할 수 없어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그들의 „yes“를 말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양심을 거스리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Přesto ale nadále zůstává původní Pavlova otázka: Proč evangeliem zůstal neosloven starozákonní Boží lid - tedy ti, kdo ho směli zaslechnout skutečně jako Boží slovo, a ne jako lidské slovo, které se za Boží jen vydává? Už mnohem dřív se Izraelcům Hospodin zjevil jako jejich Pán, Stvořitel, Zachránce. Tak proč nyní nepřijali Krista, v němž tento Pán přišel mezi nás? Apoštol Pavel neřeší všeobecný teologický problém, který se dá prostě odsunout z pracovního stolu, když si s ním nevíme rady. Trápí ho cosi velmi osobního. Pavel byl Žid a ke svému původu se vždy hlásil – a to nejen předtím, než se stal křesťanem, ale i potom. Proč si moji bratři a mé sestry, ptá se Pavel, nenašli cestu k Mesiáši, kterého přece oznamovali odpradávna proroci a k němuž se upínaly naděje Izraele? Proč Ježíš přišel do vlastního a jeho vlastní ho nepřijali?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처음에 언급했던 질문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왜 복음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 즉,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만 사람들을 통해 전파된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직접 들을 수 있었는데 왜 복음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창조와 구원의 주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괴롭히는 아주 개인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천이 되기 전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이 되고 난 후에도 그가 유대인인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의 형제 자매들이 오래 전부터 선지자들이 메시야라고 말해왔던 그 메시야께로 가는 길을 찾지 않았는지, 왜 그 메시야에게 희망을 두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집에 왔지만 왜 그의 백성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5. Pavlova zkusmá odpověď zní: Izrael nepochopil. Jenže se hned vynoří další otázka: Proč nepochopil? Co je na evangeliu nepochopitelného, když mu mohli porozumět prostí rybáři u Genezaretského jezera? Snad by tedy bylo lepší opustit bezradnou otázku „proč“ a proměnit ji v jinou otázku: „k čemu“. Když už se to jednou stalo, k čemu to mohlo být dobré? Neptejme se po příčinách, ale spíše po důsledcích. Čemu nebo komu to pomohlo?

바울의 대답은 이스라엘이 이해하지 못했다 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왜 이해하지 못 했을까요? 복음에는 평범한 갈릴리 호수 어부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을까요? 질문에서 „왜“ 라는 의문사를 „무엇에“ 라는 의문사로 바꿔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무엇에 좋을까요? 원인을 묻지말고 결과에 대해 물어봅시다. 발생했던 어떤 사건이 무엇에,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6. Zkusme si projít krok za krokem Pavlovu úvahu. Izrael selhal. Jako už tolikrát ve svých dějinách. Opět odmítl člověka, který přišel od Boha. Ba ne, ještě mnohem více: odmítl Boha samotného, který přišel v lidské podobě. To je příliš veliké provinění. Těžké porušení vztahu mezi Bohem a jeho vyvoleným lidem.

바울의 생각에 한걸음씩 더 다가가 봅시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관련하여 무수히 실패했던 것처럼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 이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인자까지 거부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그 분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큰 잘못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의 선택된 백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큰 위법입니다.

7. Bible o tomto vztahu často hovoří jako o manželství. Neposlušnost Izraele tedy není nic jiného než nevěra. A každá nevěra vzbuzuje žárlivost toho druhého partnera. Bible se nestydí označit Hospodina jako žárlivě milujícího. Bůh není lhostejný vůči tomu, že ho jeho lid podvádí s jinými božstvy, že si ho nevšímá, že ho zrazuje. Jeho žárlivost je podtržením jeho lásky, která chce svého partnera jen pro sebe. Bůh nestrpí, aby se dělil o lásku s někým jiným.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종종 혼인관계에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불신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의 모든 불신은 다른 배우자의 질투를 불러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질투의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긴다든가, 하나님 당신을 생각지 않거나, 당신을 배반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실 영광을 결코 다른 것과 나눠갖지 않으십니다.

8. Co se stane, když je v manželství jeden druhému nevěrný? Známe to: Často to končí rozvodem. A v dějinách Izraele to skutečně občas vypadalo, že takový rozvod je už na spadnutí. Že Bohu prostě došla trpělivost a svoje vyvolené od sebe odvrhl, nechal je napospas cizím národům a jejich vládcům. Jenže Boží nepochopitelná věrnost a trpělivost vždy nakonec nad žárlivostí zvítězila.

부부관계에서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부부관계는 종종 이혼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이러한 이혼으로 치닫게 되는 것과 같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당신의 백성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이방민족 이방 통치자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당신의 질투심을 억누르셨습니다.

9. Tentokrát se ovšem zdá, že je všechno jinak. Že pohár Boží trpělivosti přetekl. Když oni dali přednost jinému bohu, já dám zase přednost jinému lidu, říká Hospodin. Ze sporu mezi Hospodinem a jeho lidem nakonec těží úplně někdo jiný, kdo se do té roztržky jakoby omylem připletl. Bůh se dal nalézt těm, kdo ho nehledali. Dal se poznat těm, kdo se po něm neptali.

그러나 이 번 만큼은 모든 것이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잔이 흘러 넘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에게 우선권을 줄 때, 하나님은 다른 백성에게 당신의 우선권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불화로 인해 생겨난 틈으로 잘 못 들어온 어떤 사람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를 찾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10. Tento nový lid jsme my. Na svůj původ nemůžeme být moc hrdí. Byli jsme – podle apoštolových slov - národ, který není národem; národ pošetilý, jdoucí svévolně po vlastních cestách. Byli jsme národ, který – na rozdíl od Izraele - nezná Hospodina a jeho velké činy. Bůh dokáže i lidské selhání proměnit v požehnání. A to požehnání teď platí pro nás. K nám se Bůh přiklonil. Vůbec ne proto, že bychom si to zasloužili. Naopak: právě proto, že jsme byli Bohu tolik vzdáleni, že jsme nábožensky žili ve lži a v bludu.

이렇게 해서 생겨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본 모습을  자랑스러워 할 수 없는 사람들 입니다. 우리는 – 사도들의 말에 따르면 –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으로, 어리석은 백성으로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는 – 이스라엘과 달리 – 하나님과 그의 위대한 역사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화를 복으로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했으며, 거짓과 위선 속에서 종교적으로 살았습니다.

11. Tolik Pavlova úvaha. Mohli bychom nyní s ulehčením a vděčně vydechnout. Ale byla by to trochu samolibá a neprozíravá radost. Stojí za to si také připomenout i to další, co ještě Pavel o Božím vyvolení říká a co se do dnešního biblického oddílu už nevešlo. Je toho hodně a není to žádné jednoduché čtení – právě proto, že věc, o které je tu řeč, taky jednoduchá není. A snad právě proto si ji další generace křesťanů zjednodušily.  Černobílé vidění brzo ovládlo křesťanský postoj k židovskému národu, ale v epištole Římanům není po něm ani stopa.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진술로 인해 우리는 홀가분하고 기쁜 숨을 내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간 자기만족적이고 경솔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택에 대한 다른 말씀들과 오늘날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많은 다른 말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선택에 대해 조리있게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아마 크리스천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선택에 대한 진술을 간소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버리고 이방민족을 택하셨다는 주장과 같은 흑백논리는 유대민족에 대한 크리스천들의 생각을 편협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우리는 흑백논리에 대한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12. Povězme hned to nejdůležitější: Pavel neříká, že příběh mezi Izraelem a Hospodinem je u konce. Netvrdí, že k tomu definitivnímu rozvodu opravdu došlo. Bůh neztratil se svým prvním lidem trpělivost. Nepřestal mu být věrný. Jeho smlouva trvá dál. Jakým způsobem jednou dojde svého naplnění, nevíme. Že ale k tomuto naplnění dojde, o tom Pavel nepochyboval

가장 중요한 것을 살펴봅시다. 바울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첫 백성을 향한 인내심을 결코 잃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첫 백성을 향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를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3. Křesťanská povýšenost tedy vůbec není na místě. Nejen proto, že jsme si Boží vyvolení nijak nezasloužili, ale také proto, že křesťanské vyvolení to židovské nijak neruší. Církev nenahradila Izrael. Nenastoupili jsme na jeho místo. Můžeme jen pokorně říci: byli jsme k Božímu lidu přiřazeni. Bůh má místo i pro nás.

그러므로 기독교의 오만함은 결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대신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겸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또한 거할 수 있는 곳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14. A nakonec to nejdůležitější: Také my – stejně jako židovský lid – žijeme z Božího milosrdenství a odpuštění. Jsme na ně odkázáni, protože i my se trvale vůči Bohu proviňujeme. I my zrazujeme to drahocenné pouto k němu. Ani v tomto tedy nejsme o nic lepší než Izrael. Dějiny i přítomnost církve jsou žel o tom smutným svědectvím. Jak bychom mohli tvrdit, že my si Boží trpělivost zasloužíme – a Izrael ne? Copak jen my máme právo na Boží odpuštění – a Izrael už ho ztratil?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로 인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또한 늘 하나님께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귀한 유대관계를 늘 배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전혀 더 낫지 않습니다. 역사와 교회가 안타깝게도 그 슬픈 간증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받을 자격이 있고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스라엘은 이미 그 권리를 잃어버렸다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15. Mnozí evangelium nepřijali, říká apoštol Pavel. Je dobré tuto otázku čas od času obrátit i vůči sobě. Jak jsme evangelium přijali my? Zapustilo v nás skutečně hluboké kořeny? Vždyť když my nebudeme v Kristu zakořenění, povolá si Bůh místo nás třeba kameny. Amen.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을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바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예를 들어 이 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